

소헌왕후[昭憲王后]

세종의 비, 시련을 딛고 성군의 아내가 되다

1395년(태조 4) ~ 1446년(세종 28)



1 개관

소헌왕후(昭憲王后)는 조선 세종의 비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조부는 개국공신 심덕부(沈德符), 아버지는 심온(沈溫), 어머니는 순흥 안씨 가문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심덕부를 중심으로 하여 청송 심씨 가문은 번성하였고, 소헌왕후의 숙부 심종(沈淙)이 태조의 사위가 되면서 왕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소헌왕후는 심온의 장녀로서, 1408년(태종 8)에 왕자 충녕군(忠寧君)과 혼인하였다. [관련사료](#)

세종과 소헌왕후의 슬하에는 8남 2녀가 있다. 8남은 문종(文宗), 세조(世祖. 수양대군), 안평대군(安平大君), 임영대군(臨瀛大君), 광평대군(廣平大君), 금성대군(錦城大君), 평원대군(平原大君), 영응대군(永膺大君)이고, 2녀는 정소공주(貞昭公主), 정의공주(貞懿公主)이다.

2 충녕군과 혼인하다

1408년(태종 8)에 혼인할 때 충녕군은 12세, 부인 심씨는 14세였다. 세자 양녕대군이 수년 간 각종 구설에 오르기는 했어도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418년(태종 18)에 양녕대군은 결국 그의 행실이 문제가 되어 세자위에서 폐해졌다.

조정에서는 후계를 두고 양녕의 적장자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보다 합당한 인물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택현(擇賢)'에 의거하여 충녕대군을 세자에 책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관련사료 물론 '택현'이라는 명분은 태종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적용된 것이지만, 관련사료 충녕대군의 학문적 능력이나 현명한 처사는 왕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간혹 태종은 세자와 비교하며 그의 학문적 이해나 적절한 결단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혼인 이후 심씨는 약 10년간 왕자의 부인이었지만,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면서 부인 심씨도 경빈(敬嬪)에 책봉되었다. 관련사료 당시 그녀는 셋째 아들 안평대군을 출산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남편의 즉위식을 지켜보았고, 그녀 역시 공비(恭妃)의 호를 받았다. 관련사료 이때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다.

3 왕비가 된 직후의 비극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공비가 마주하게 된 것은 왕비로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 아버지 심온이 역모죄로 죽임을 당했고, 심온과 관련된 가족, 친척, 관료들까지 대거 처벌되었다. 친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왕비로서의 위상도 위태로웠다.

당시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상왕이 되었지만, 일시 병권을 맡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병조참판 강상인(姜尙仁)이 군사 관련 일을 세종에게 먼저 보고하였고, 이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강상인의 옥'은 몇 달 간의 국문 끝에 강상인, 박습(朴習) 등의 관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모든 사건의 배후로 심온이 지목되었고, 당시 사은사로 명에 파견되어 있던 심온은 대역죄를 입게 되었다.

심온이 귀국하기도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신속하게 행해졌다. 심온의 아내와 딸들을 천인으로 삼고 재산도 몰수하였다. 연좌의 범위도 광범위했다. 심온에 의해 천거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거나 혹은 그의 친척이나 친밀한 사람들까지도 파면 등의 처벌을 받았다. 공비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천인으로 삼았고, 집과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였다. 관련사료

심온이 대역 죄인으로 논죄되고 있었던 만큼 그의 딸인 공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공비의 폐비 논란에 대해 상왕 태종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형률(刑律)로도 연좌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폐비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

다. [관련사료](#) 상왕 태종이 직접 며느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고 하는데, 그의 말이 소헌왕후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는 미지수다.

4 왕비로서의 삶

소헌왕후는 왕비가 되고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그래도 남편 세종은 부인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특히, 부왕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소헌왕후에게 주어진 각종 제약을 풀어주었다. 1424년(세종 6)에 외할아버지의 집에 거동할 때에는 왕후의 행렬을 종친·외척·재상의 부인들과 각 관사의 관리 한 명씩 뒤따르게 했으며, 집에서는 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잔치가 열렸다. [관련사료](#) 이는 실추된 왕비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이후 세종은 소헌왕후의 어머니 안씨와 그 자녀들을 천인 문서인 천안(賤案)에서 빼주었다. [관련사료](#) 연회에서 중궁의 상차림에까지 신경을 쓰기도 했다. [관련사료](#)

세종의 국정 운영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헌왕후도 왕비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1426년(세종 8)에 도성 안에 큰 불이 났을 때 왕후가 문무백관에게 전교(傳敎)하여 종묘, 창덕궁의 구제에 힘쓸 것을 명하였다. [관련사료](#)

소헌왕후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의례도 많았다. 왕실의 오례의(五禮儀)가 정비되어 가면서 왕비와 관련된 각종 의식들도 갖추어졌다. 이외에도 왕후는 내명부(內命婦)를 위한 잔치를 종종 열었고, 80세 이상 여성을 위한 양로연을 베풀기도 했다.

1432년(세종14)에는 왕비 책봉 의례를 거행하였다. [관련사료](#) 이미 왕비로서의 위상은 갖추었지만, 왕실 의례를 유교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책봉 의례를 행하였다. 각종 의식(儀式)과 더불어 왕비로서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 해 동지를 맞아 망궐례를 행할 때에는 국왕과 왕비가 근정전에서 함께 의례를 행하였다. 이전에는 왕비가 내전에서 별도로 연회를 받거나 신하들의 하례를 받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같은 곳에서 의례를 받는 일은 드물었다. 왕비가 하례(賀禮)에서 백관을 대상으로 답사(答辭)하는 것도 이때가 시초였다. [관련사료](#)

세종은 왕비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자신이 부재중일 때에는 왕비의 뜻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1429년(세종 11)에는 세자빈 휘빈(徽嬪)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각종 술법을 써보려 했다가 폐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왕비는 세종과 함께 내막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왕이 강무로 거동했을 때 밤에 궁문을 열고 닫는 것을 왕비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또 병조에 명하여 국왕이 행재소에 있을 때 긴급히 달려와 아뢰지 말고 중궁의 명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 [관련사료](#) 병조가 군사와 관련한 핵심 관청임을 감안해 보면, 왕후의 조치가 임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라 해도 세종이 그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헌왕후는 1446년(세종 28)에 병이 깊어져서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관련사료](#) 능은 여주에 있는 영릉(英陵)으로, 나중에 세종과 합장되었다.

5 소헌왕후와 불교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척불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래 지속되어 왔던 불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왕실에서조차 불교의식은 행해졌고, 불교에 대한 믿음도 여전했다. 태조는 불교 신앙이 독실하였고, 태종은 강경한 척불을 시행하면서도 간혹 불교 행사를 시행하였다.

세종 역시 유교 예제를 정비하고 유교 윤리의 확산에 노력하였지만, 한편으로 불교 의례를 꾸준히 설행하였다. 세종은 “부처를 좋아한다[好佛].”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신앙이 깊었고, 의례에서 유교와 불교의 공존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왕실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완쾌되기를 기원하면서 불교 행사를 열었다. 이는 소헌왕후가 병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승려들을 불러 기도하게 하고, 세자와 대군들이 팔뚝을 향불로 지지는 의례인 연비(燃臂)를 행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그러나 소헌왕후가 생전에 직접 불교 의례를 열거나 불교 전적의 발원 주체가 되지는 않았다. 왕후가 불교 신앙이 깊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이 왕후의 죽음을 불경 편찬을 통해 기리고자 했다는 점은 그녀가 불교 신자였음을 반증한다. 세종은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려 한다.”면서 편찬을 허락하였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을 주축으로 하여 불경을 짓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완성된 책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이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보고 나서 석가의 공덕을 찬송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